

산계는 계속되는 노사분규에 휘말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위기의 국면에 처한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헌법과 관련법규에 의해 쟁의행위가 금지된 우리 방산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극심한 노사분규를 경험해야 했으며, 일부사업장의 경우 불법쟁의행위가 점차 극열화되어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노사관계 본래의 범주를 벗어나 민주화 추세를 틈탄 체제도전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그리고 업계대표 여러분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準戰時 상황에 있는 국가에서 방위산업이 노사분규로 인해 조업의 차질을 빚는 오늘의 현실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나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각 기업은 노사분규를 방지하여야 할 1차적 책임이 해당기업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기업 스스로

근무조건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노사간의 적극적인 대화와 신뢰를 돈독히 하는 등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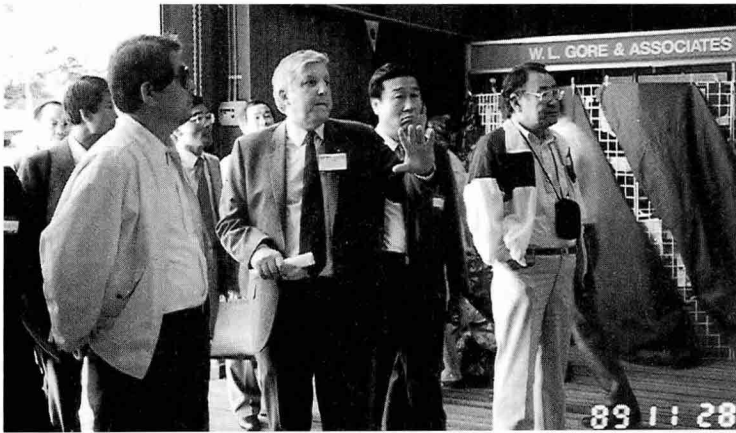
그러나 정부 당국도 기업능력의 한계를 떠나 체제도 전적 성격의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집행 등 실정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책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방위산업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업을 중단할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베풀어주신 뜻깊은 자리를 맞아 우리 회원사대표들은 국가안보의 역군으로서 높은 긍지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정진할 것을 다짐하오며,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이상훈 국방부장관님과 내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빌면서 축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방산업체 대표단, 濠洲 방산전시회 참관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등 4개국 방문—



호주 캔버라에서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개최된 국제 방산전시회(AI-DDEX '89)를 참관한 국내 방산업체 대표단 일행이 DMC의 Meibusch 장군으로부터 현황청취와 함께 안내를 받고 있다

화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방산제조위원회(DMC)를 방문하여 토의시간을 가진후 한자리에 모인 우리 대표단 일행



호주 방산제조위원회를 방문하여 한국과 호주의 방산협력 증진에 관해 토의시간을 가졌다.



호주 탄약회사인 AFF사를 방문하여 기념패 및 한국 국방조달 책자를 증정하였다



호주 우주항공기술회사(ASTA)를 방문하여 호주의 항공산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였다.

화보 뉴질랜드



뉴질랜드 방산제조협회(DMA)를 찾아 국방부 관계자 및 업체 대표들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레이저 사격모의훈련장비 생산업체인 Osmar사를 방문하고 공장을 견학하였다

화보 브루나이



브루나이의 Malai Ali 산업자 원성 차관 및 방산관계지들과 韓·브루나이間 방산공동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토의시간을 가졌다

화보

인도네시아



우리측 대표단 일행은 12월 5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협의하였다



우리측 일행이 인도네시아 방산전시회장을 둘러보면서, 안 내장교로부터 진열된 방산품목별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해외뉴스

濠洲, 북방방벽 건설

호주 의 군부는 조용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해군이 서부 호주에 기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 육군과 공군은 호주의 북부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하고 있다.

호주가 방어력을 북부에 집중시키고 있는데

는 3가지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태평양 주변전략에 대한 호주의 인식과 호주의 북쪽 및 동쪽의 인접국가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파푸아 뉴기니아 및 태평양군도에 대한 방위 공약 그리고 예상되는 대륙으로부터의 위협을 감안한 것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의 호주의 방어전략은 그 자체를 방어하는 것보다 강대 동맹국과의 밀접한 관계유지에 중점을 두고